

## ‘대나무 숲’에서 보는 민주주의의 미래

박영득

(연세대 사회과학데이터혁신연구센터 연구교수)

요즘 대학생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대나무 숲’ 계정을 즐겨보고 있다. 대나무숲이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 이야기에서 나오는 대나무 숲처럼 차마 자신이 신상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말들을 익명으로 외치는 곳이다. 대학생들은 대나무 숲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표하기도 하고, 섭섭한 일을 털어놓고 동료 학생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학과, 동아리 등 대학 곳곳에서 발생하는 부조리한 일들이 대나무 숲을 통해 밝혀지거나 학교 안에서 화제 내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에 대해 나름대로 과감한 의견들이 던져지는 일도 많다.

어떤 사람은 대나무 숲이 그저 대학생들이 익명의 힘을 빌려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여지는 난장판이라고 생각지도 모르겠지만, 대나무 숲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조심스레 지켜볼만한 곳이다. 사실 대나무 숲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예컨대 학과나 동아리에 존재하는 부조리한 일들은 대개 을(乙)의 입장에서 쓰여진다. 동아리 선배가 술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다든지, 학생회장이 공금을 유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든지, 수업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든지 하는 제보들이 그 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당사자의 앞에서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게다가 이해당사자도 아닌 이들에게 고자질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나 을이 대나무 숲에 땅을 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드러내놓고 말하기에는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고, 그 두려운 일은 되도록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대나무 숲이 현재 대학사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 하자면, 대학사회에서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지를 공적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물론 날조된 제보에 의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대나무 숲에 제보되는 갈등이나, 사건, 사고는 대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사로운 일이지만, 그 이야기들이 대나무 숲을 통해 퍼지는 순간 그 갈등은 공공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어떤 갈등을 공공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단지 그들만의 사사로운 일로 다뤄질 때 그 갈등에서 승자는 둘 중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갈등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공공의 문제로 전환되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약자의 정당한 몫’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나무 숲의 이야기는 네트워크 사회가 공공의 문제, 즉 정치가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정의하는 권력을 약자에게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대의민주주의가 그 이상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문제를 정의할 권력이 결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치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가, 지식인, 언론인, 로비스트 등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문제를 정의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택하는 문제는 공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만, 그들이 외면하는 문제는 강자의 이익으로서의 정의가 통용되는 사적 갈등의 영역에서 처리될 뿐이다.

따라서 시민의 요구에 공정하게 반응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가능케 하는데 핵심적인 토대를 세우는 일은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의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네트워크 위에 형성된 시민들의 광장은 정치적 의제의 광산이며, 그곳에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정부와 정당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로 방치된 갈등들로 가득할지도 모른다. 즉,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도 정치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은 문제들을 발굴하는 능력과 발굴된 문제 중에서 보석과 돌덩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정부와 정당에게 요청된다.